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동산



김건수 교장 선생님

동 구 관내의 이웃학교인 박문학교가 최근 송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열악한 환경과 인구공동화가 초래한 심각한 학생 수급의 문제를 감독관청인 시교육청이나 지자체인 동구청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박문학교를 닦할 일만도 아닙니다.

사실 다년간 학생정원 감소에 이어 학급감축을 겪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산도 전부터 학교이전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동구에 중학교가 부족하니 중학교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전계획을 보류하였습니다.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청의 판단착오로 생긴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동구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천시 91개 일반계교 중 동구에는 박문과 동산뿐입니다. 박문에 이어 동산마저 이전한다면 동구에는 일반계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야구부가 있는 우리 학교는 이전하려고 해도 현재 쓰고 있는 13,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현재 학생수, 학급수가 많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74년을 이어온 이곳을 지켜 동구 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산은 이미 인천에서 가장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가진 학교입니다. 여기에 더욱 개선된 환경을 갖춰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동산을 만들 것입니다.

우선 1962년 안익태선생이 귀국연주회를 했던 유서 깊은 강당이 지금은 너무 낡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교육청에서 12억8천만원, 재단에서 28억2천만원, 총41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강당 신축공사를 시작하면 내년에는 인천에서 제일 좋은 다목적강당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유일의 청룡기 3연패의 명문고로서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하고 대한민국 야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야구부와 최초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임배영, 장창선 동문 등을 배출한 레슬링부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시 지원 4억1천6백만원, 재단에서 11억2천4백만원, 총15억 4천만원을 들여 훈련장 및 합숙소 신축을 금년 말 마칠 것입니다. 또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어 연기되었지만, 내년에 시교육청 지원으로 기숙사를 짓게 되면 학생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문여고가 떠나면 동구에 남은 유일한 일반계교 동산은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동산고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 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동구 지역사회도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명문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 근린공원 등 녹지가 별로 없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매일 동산 숲과 운동장을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지역사회에 동산이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문 이전을 계기로 동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학교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